

디모데 후서 3-4  
Tape #C2618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now in our Bibles to Second Timothy chapter three? Paul said to Timothy,

이제 디모데 후서 3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입니다.

This know also, that in the last days perilous times shall come (3:1).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3:1).*

It is interesting that the Scriptures in many places speak of the last days and in every case where the Scriptures speak of the last days, you find that it is an apt description of the day and the age in which we live. And so Paul is warning Timothy of certain things that will be transpiring in the last days. And as we go down the list, it's like reading the afternoon newspaper. "Perilous times shall come." The cause of the perilous times are found in the things that people will be doing, and at the top of the list,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세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항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 그것은 마치 매일 조간 신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를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행하게 될, 위에 있는 항목의 내용에서 볼수 있습니다. 2절

Men will be lovers of their own selves (3: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3:2),*

Have you ever seen an age when people were more conscious of their own selves? Everything today is, you know, for the body beautiful. The emphasis of so many people is just on being beautiful, lovers of themselves. Narcissism is at an all-time peak, but with lovers of yourself comes,

사람들이 오늘 날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모든 것이 다 자기 육신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것들 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 도취증은 정상에 이르렀고 자신 만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covetousness (3:2),

*돈을 사랑하며(3:2),*

That desire for more. For after all, I'm worth it. You know, I mean, talk about lovers of selves, look at the advertising. Oh I know it costs more but...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자랑을 하면서 광고합니다. “오, 그게 비싸긴 하지만 나는 그걸 가질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2절을 계속합니다.

Boasters, proud, blasphemers, disobedient to parents, unthankful, unholy (3:2),

*자궁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2),

Each one of these words in the Greek is an interesting word study. We don't have the time to devote to it this evening but I would suggest that you get a good Greek lexicon and do a word study on these particular Greek words that Paul uses to describe the attitudes and the actions of people in the last days.

여기에 있는 각 단어들을 헬라어로 공부하면 재미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어 사전을 사용하여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바울이 사용한 특수한 그리스 단어를 공부해 보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3절,

Without natural affection (3:3),

*무정하며* (3:3),

As I read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our modern-cultured Orange County, as I read the reports from the social department on the child abuse, I just shake my head in disbelief because a person could not possibly do these things unless they were without natural affection. There is just a certain natural love that would keep people from doing a lot of the things they are doing today. All you can say is that they are “without natural affection”.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일어난 아동착취에 관한 기사를 사회 복지부의 보고서에서 읽을때, 나는 사람이 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오늘 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것은 오직 자연적인 부모의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말할수 있는것은 그 사람들은 “인정 머리도 없어” 라는 말 뿐입니다.

God has put in our heart a certain natural love as a parent for a child. There is instinctively, I think, within persons that love of a parent for a child or an adult for the child because we realize the helplessness of a child, the dependency that they have. And for a person to take advantage of a child is unthinkable. And yet, it is becoming in this hedonistic society commonplace, all too commonplace, tragically commonplace.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나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평범한 일이며, 너무 평범해져서 비극적으로 평범하게 받아들여지게 까지 되었습니다.

I am reminded of the prophet of God who spoke concerning Israel, and he said, "They have sown the wind, and now they must reap the whirlwind" (Hosea 8:7). I'm afraid that that is also true of us. We have sown the wind, now we're going to reap the whirlwind.

이스라엘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생각 납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는 말씀입니다 (호 8:7). 두렵건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바람을 심었으므로, 이제 광풍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3 절,

Trucebreakers (3:3),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3:3),*

How many people who have stood before God and have pledged for better, for worse, for richer, for poorer, in sickness and in health, to love and to cherish, until death do us part; and yet again, the high divorce rate. "Trucebreakers". You've made a covenant and there are so many broken covenants. Some of you here are victims of broken covenants. Some of you are separated not by your own desire or wish, but because someone was a trucebreaker. They did not keep the covenant that they made. Again, it is startling. How appropriate that "trucebreakers" is for this day.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부 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언약을 했지만 깨어진 언약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중에 어떤 분들은 깨어진 언약의 희생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욕망이나 소망에 상관없이 누군가 원통함을 풀지 않음으로 갈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3절을 계속 봅니다.

false accusers, incontinent (3:3),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3:3),*

That is, without any sexual restraints. Boy, I'll tell you, I don't know. Living here almost in a Sodom-Gomorrah atmosphere and environment. My wife and I eat out quite a bit. We usually try to avoid it on Friday evening if we can, but sometimes our schedules are such that we just don't have time to. She doesn't have the time to prepare the meal on Friday evening and we'll go out on

Friday night. But I can't believe what I see in some of these restaurants over here in the Irvine industrial business center. Friday evenings, you know, everybody out looking for their weekend companion, incontinent, no sexual restraints.

요즘에는 성도덕이 대단히 문란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분위기와 환경에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는 거의 외식을 자주 합니다. 통상 금요일저녁은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 없거나 하면 금요일이라도 외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근처 식당에 가면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너도 나도 이 주말을 즐길 성적 파트너를 고르러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4절

fierce, despisers of those that are good, traitors, heady, highminded, [and then] lovers of pleasure more than lovers of God (3:3-4);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3:3-4);*

The pleasure mania of the United States. We've just experienced a tremendous demonstration of that in the Los Angeles basin in the last couple of weeks. The numbers of people who flocked to the various athletic contests, loving pleasure. Now, there's nothing wrong with enjoying life. I believe God intended that you should enjoy life.

미국의 쾌락주의자들이 지난 두 주 동안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 참으로 기막힌 데모를 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각종 운동 대회의 선수들이었으며 쾌락주의를 선호했습니다. 물론 삶을 즐기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즐기도록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having pleasure. I believe that God intended you to have pleasure, but when it comes before God, it means that it has become your God and it makes a very poor God to worship or serve. Good to have pleasure but don't make it your God. They love pleasure more than they love God; that's the indictment. It has become their God and thus, they are guilty as those in the Old Testament who were worshipping Mammon, who, or rather Molech who was the god of pleasure. "Lovers of pleasure more than lovers of God."

즐거움을 가지는것 그 자체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여러분의 우상이 되며, 그렇게 되면 그 빈약한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구약성경은 당시의 사람들이 물질의 신인 맘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고 또 쾌락의 신 몰렉을 섬겼으므로 정죄를 받게 된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5절에

Having a form of godliness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3:5),*

They still, you know, pay their respects.

그들은 여전히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7절까지 읽습니다.

*but they deny the power thereof: [Paul said to Timothy] from such turn away. For of this sort are they which creep into houses, and lead captive silly women laden with sins, and led away with divers lusts, ever learning, and never able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3:5-7).*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3:5-7).

So the Greek word that is used here to describe these that are going around, leading captive the silly women, is the same Greek word that was used to describe quackery, and that's probably they're quacks, Paul is saying. The kind of guys that went around selling snake oil or cure-alls, deceiving, defrauding people.

여기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란 말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헬라이어 단어는 엉터리 치료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기꾼을 묘사하는 헬라이어 단어와 똑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뱀 기름이나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을 팔려고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쳤습니다. 8절

*Now as Jannes and Jambres withstood Moses, so do these also resist the truth: they are men of corrupt minds, reprobate concerning the faith (3:8).*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3:8).

Now when Moses appeared before Pharaoh and he threw down his rod and it turned into a snake, you'll remember that Pharaoh's magicians threw down their rods and they also became snakes, but Moses' snake swallowed theirs. Jannes and Jambres were the names of the two magicians that withstood Moses. Now this is not given to us in the Scriptures but there are other, what are known as apocryphal books, in which these two fellows are named. And that is, it doesn't tell us in the Scripture in Exodus that that was their names but Paul gives us their names here, Jannes and Jambres who withstood the truth. And they were able to imitate the workings of God up to a point and then they came to the place where they were backed down by Moses, but "men of corrupt minds, they are reprobate concerning the faith."

모세가 바로의 앞에 서서 그의 지팡이를 던져 그것이 뱀이 되었을때, 바로의 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도 뱀으로 변했으나 모세의 뱀이 그들을 삼켜 버린것을 기억하실줄 믿습니다. 얌네와 얌브레는 모세에게 대항했던 두 술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는 그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바울은 여기에 진리를 대적했던 안네와 암브레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까지는 흥내낼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모세로 말미암아 후퇴해야 하는 시점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 이었습니다.

The Bible tells about God giving people over to reprobate minds, men who resist God and the truth of God. Their minds become corrupted and they ultimately become reprobate concerning the faith. I watch very little, but with horror and dismay, the deterioration of a man who probably at one time had a legitimate ministry, but I've seen the gradual erosion of this person on television just right before my eyes. Still the man has become crude, blasphemous, ranting and raving, a disgrace to Jesus Christ who said, “By this sign shall men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that you love one another” (John 13:34). And there's such a complete, total absence of love. The thing that amazes me is that he can attract people who will support him. “Men of corrupt minds.”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진리를 대적 하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타락했고 종국엔 믿음에 관하여 상실한 마음이 됩니다. 나는 거의 TV를 보지 않는 편인데, 한때는 아마 합법적인 사역을 했던것 같은 사람의 타락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이라고는 한번쯤이나 했을, 이 파렴치한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 서서히 악화되어 가는 것을 바로 내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불경스럽고 교양 없는 말로 호통을 치던가 아니면 과장된 흥분으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그는 여전히 불경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헛소리를 하여 망신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놀란 것은 그러한 “마음이 부패한 자”인 그에게 이끌려 그를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역겨웠던 것은 그가 자신에게 헌금하려는 사람들에게 흠뻑 빠져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패한 마음입니다.

The Lord said it's “what comes out of the mouth of a man, that defiles a man” (Matthew 15:11). For “out of the abundance of the heart the mouth speaks” (Matthew 12:34). When a man's language becomes filthy, obscene and crude, it shows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im. “Reprobate concerning the faith.”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 □□□ □□□ □□ □□□ □□□□’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더럽고 음란하며 거칠어 질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 입니다.

But [Paul said] they shall proceed no further: for their folly shall be manifest unto all men, as [Jannes and Jambres] also were (3:9).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 임이니라 (3:9).

In other words, you may go along for a while, but ultimately it's going to catch up with you. You may be able to deceive people for a while, but ultimately, it's going to catch up, even as it did with Jannes. And there came that place where, hey, Moses performed a miracle of God and they backed away. They said, Wait a minute, this is the hand of God, we can't, we can't touch this. And so there comes that point where they will proceed no further: "their folly becomes manifest to all men", as Jannes and Jambres also was. Jambres.

바꾸어 말하자면, 잠시 동안은 사람들을 속일수 있겠지만 결국은 들통이 날것입니다. 심지어 안네도 그러했습니다. 안네와 암브로는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던 그 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물러갔습니다. '아이쿠, 이거 진짜 하나님의 손이네. 우리는 이것에 감히 손도 댈수 없어.'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계속할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것은, 안네와 암브로가 그러했듯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것입니다.

*But thou hast fully known (3:10)*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3:10)

Now in contrast to this, boy, and what a contrast the Christian is to the world around him, and more and more, you know, more and more your lifestyle is different from the world. More and more the Christian is a marked person because the more corrupt the world becomes, the more the Christian stands out. The more the person who lives godly and righteous in Christ stands out. And so Paul said to Timothy, "You have fully known"

이제 그리스도 인들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 자신들의 삶이 세상과 대조되며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부패해 지므로 그리스도인 들은 더욱 눈에 띄게 되고 길으로도 또한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리스도안에서 더욱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테에게 "네가 모든 것을 알았거니와"라고 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my doctrine, and my manner of life, my purpose, my faith, my longsuffering, my love, and my patience, [you know the] persecutions, and the afflictions,

which came unto me at Antioch, and Iconium, and Lystra; what persecutions I endured: but out of them all the Lord delivered me (3:10-11).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3:10-11).

Timothy was from Lystra. Paul met him on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At that time Timothy was just a very young boy, probably in his mid-teens and yet he was attracted to Paul the apostle because of the message that Paul bore. Timothy had been schooled in the Scriptures from his early youth by his mother and grandmother, and so as Paul began to, with the Scriptures, prove that Jesus was the Messiah, with Timothy's background, he could see the truth of it. And he embraced Christianity, but he was probably standing there in Lystra when the people in the city stoned Paul until they thought he was dead and dragged him out of the city. And he was probably in the company of those that were standing around, sort of crying, as they saw Paul's limp body on the ground. And suddenly, of course, their tears were changed because Paul began to breathe and move and he stood up and he said, Let's go back in and preach some more.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첫번째 선교 여행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는 겨우 청소년기에 있는 10대 중반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교육 받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을 토대로 예수가 참 메시아였음을 증거할 때, 그의 이러한 교육배경은 이 말이 진리임을 금새 알아차릴 수 있었으며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를 급히 도시 밖으로 끌어 내었을때 아마 디모데는 그곳에 서 있었던것 같습니다. 바울을 둘러싼 사람들 중에 서 있던 디모데는 소리 없이 울며 바닥에 힘없이 늘어진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울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몸을 움직이다가 일어서서 말하기를 '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자'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눈물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Paul said, you know, what kind of a life I've lived. You know the persecutions that I experienced, but the Lord delivered me out of them all. "Many are the afflictions of the righteous: but the Lord delivereth him out of them all" (Psalm 34:19). Paul's life contrasted with the world. Christian life is a life of purpose. The world just exists, no real goal, no real meaning; you're just existing. Paul's life: one of faith. Paul's life: one of longsuffering, one of love and one of patience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가 어떤 핍박을 경험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 34:19). 바울의 삶은 세상과 대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그저 존재하지만, 참 목적은 없고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같은 삶을 살면,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한가지 믿음으로 지속해온 바울의 인생,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이어온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Now you'd think that the world would treat a person like that very cordially. It is interesting, when Jesus in the Sermon on the mount described the Christian in the Beatitudes, after having described the traits of the Christian in the Beatitudes; you'd say, My, a man like that who is a peacemaker, who is merciful, who is hungering and thirsting after righteousness, who is meek, who is poor in spirit, surely you know the world would respect such a man. But after giving the characteristics and traits of the godly man, Jesus then in the final Beatitudes said, "Blessed are ye, when men shall persecute you, and revile you, and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for my sake" (Matthew 5:11).

이제 우리는 세상이 선호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 있는 예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오르시고 그리스도인의 팔 복에 관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팔 복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즉 화평케 하며 긍휼히 여기고 또 의로움에 배고프고 목마르며 마음이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관해 설명하시고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치신 후에 끝에 덧붙이시길,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 고 하셨습니다.

The world really doesn't admire true Christian traits. Why? Because the true child of God brings the worldly person under conviction. They just are irritated by your love and by your patience and by your goodness because they feel guilty. Look what they did to Jesus, and Jesus said, "If they persecuted me, they're going to persecute you" (John 15:20). Don't expect the world to admire your godly stance. Don't expect the world to applaud when you speak out against evil. They'll say, crucify him, rather than applaud.

이 세상은 참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존경심을 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사랑과 인내와 선함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짜증이 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한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15장 20절). 세상이 여러분의 경건한 모습을 칭찬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것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 그들이 박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박수를 보내기는 커녕 오히려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In other words, it's not going to get better for awhile. It's going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It will be getting better a little further down the road, but evil days are going to wax worse and worse, until the Lord takes His church out and then God judges the world for its unrighteousness and ungodliness. And then Jesus will come and establish God's righteous kingdom, but by then, those that will remain will be saying, Oh, God help us. "Blessed is he who will come in the name of the Lord" (Psalm 118:26). I mean, people will have had it with the unrighteousness of the worl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26). □□□□ □상의 불의로 □□□ □□□ □□□□.

Look at the rapid deterioration of our society. You can you see what's happened even in the last twenty-five years. Look at the magazines that were once really under the counter kind of stuff and sold illegally. Now they're right out where little kids can go in and pick them up and leaf through them. Look at our attitudes towards morality. Look at the lack, lackness. Look at, of course, all of these other things that have come along as the result of it. The deterioration, rapid deterioration so that a mother has to worry when she sends her little child to school because she doesn't know what some kinky character might do, exposing themselves to that beautiful little child or even worse. God help us. If the Lord doesn't come soon, we're going to destroy ourselves as we just sink in the filth. We're going to drown in our own corruption. "Evil men and seducers will wax worse and worse, deceiving and being deceived." I think we've gone just about as far as we can. I think the next major event, Revelation 4:1.

우리의 주변을 돌아 보십시오. 급격하게 타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지난 25년 안에 일어난 일들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잡지를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모두 부정거래나 불법으로 거래 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어디서나 버젓이 판매됨으로 심지어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거리낌없이 집어서 들춰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도덕관념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도덕성의 부족으로 인해 그것의 결과로 따라오는 다른 것들을 주시하십시오. 어머니가 자신의 예쁘고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어떤 괴상한 사람이 이 아이들에게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해야할 정도로 급격하게 도덕이 타락했습니다. 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만일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부패와 타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자신을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했으니깐요. 내가 생각하기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를 좀 지난것 같으며 이 다음에 일어날 큰 사건은 계시록 4 장 1 절에 있는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But continue thou in the things which you have learned and hast been assured of, knowing of whom thou hast learned them; and that from a child

thou hast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thee wise unto salvation through the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3:14-15).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14-15).

Now it is interesting that as Paul is referring to the Scriptures here, he is, of course, referring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The New Testament had not yet been canonized. So he's referring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those which Timothy knew from the child and he called them the "holy scriptures," which they are, "and they are able to make you wise unto salvation through the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In other words, there is within the Old Testament so much concerning Jesus Christ that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you should logically be led to Jesus Christ.

바울이 이 부분에서 성경을 언급한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는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신약성경은 아직 정경으로 받아드려 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고 그들이 성경이라고 불렀던 구약성경을 말하며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됩니다.

Jesus said, "You do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in them you think you have life; but actually, they are testifying of me" (John 5:39). Again he said, "Lo, I have come (in the volume of the book it is written of me,) to do thy will, O God" (Hebrews 10:7). The volume of the book, the Old Testament, it's all about Jesus Christ. The whole concept of redemption is wrapped up in the Old Testament. The promise of the Messiah, the details of the Messiah, they are all there. And Paul said, You've known the Holy Scriptures, able to bring you to a faith in Jesus Christ, salvation through the faith in Jesus Christ.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 10:7)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대속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구약성경에 싸여 있으며, 메시아에 관한 약속과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성경을 이미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For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3:16),

Not as some would lead you to believe, some scriptures are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as we pointed out, the danger always of saying some scriptures, not all scriptures, is the loss of authority. And when you lose authority you have anarchy. Every man going his own way. Every man doing his own thing or every man believing as he wants. You have no authority.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대로 어떤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의 위험성은 권위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상실할때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뜻대로 행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겐 권위가 없습니다.

So if I tell you that some scriptures are not really inspired of God, then I become the authority, not the Bible anymore, because you can't just read the whole Bible and trust it because not all of it is inspired. So I become the authority if I make such an affirmation to you. And I will tell you what scriptures are inspired and which ones aren't. Now you get out your, you know, your green and blue pens and for the inspired ones, we'll underline those with blue and we'll use red, maybe, to underline those that are not inspired, you know and, and so here I am, I'm the authority.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부터 성경이 권위가 아니라 내가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전체가 다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니 성경 전체를 읽을 수도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을 준다면 내가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성경의 어떤 부분이 감동으로 된 것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정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밑줄을 치느라 가지고 있던 녹색이나 빨간색 펜을 꺼내세요. 초록색과 파란 색으로 영감 받은 것에 밑줄을 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 받지 않은 것은 빨간 색갈로 밑줄을 칠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 있는 내가 곧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Well, the next liberal comes along and he says, Well, no, no, no, he was wrong on that one. He said that one isn't inspired; obviously inspired. He was wrong on that you know. Get out your pen and take out the red, put the blue one. Well soon your Bible will be so messed up you wouldn't be able to read it. And why read them anyhow if they're not inspired?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자, 그 때 옆에 있던 어떤 자유 신학자가 오더니, 말합니다. “아니, 아니 저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은 틀렸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영감을 받은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틀린거예요. 펜을 꺼내서 빨간 색갈을 지우고 파란 색갈로 하세요. 얼마 안가서 여러분의 성경은 지저분해져서 읽을 수가 없을것입니다.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면 왜 그걸 전부 읽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Don't start messing with it. Don't start trying to cut out certain stories because they don't fit your scheme because you have a little hard, you have a

hard time sort of believing that. Story of Jonah has provoked a lot of problems for people, only because of their concept of God. If you can read and buy the first verse of the Bible, you should have no problem with the rest of the Bible. If your God is big enough to create the heavens and the earth, no problem, but you see, we stumble on the very first verse. And that's what creates the problem all the way through. Our God is much too small. "And God prepared a great fish and it swallowed Jonah" (Jonah 1:17). Do you have a hard time with that?

그것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의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내버리는 일은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차이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의 맨 첫번째 구절을 읽고 받아 드릴수 있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등은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광대하신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첫번째 구절에서부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삼일 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서 1장 17절) 그것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And man has prepared a great fish and they powered it with atomic engines. And a hundred and fifty men can board it and they can submerge and go under the North Pole under the arctic ice. And come up a hundred days later and be deposited at a port. Do you have a hard time accepting that man can build a great fish that can swallow men and keep them under water for several days and deposit them later at a port?

오늘날의 인간은 아주 거대한 물고기(잠수함)을 만들어서 그 속에 약 150명의 사람들이 머물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엔진을 구동하여 잠수도 하고 빙하를 거쳐 북극까지 갑니다 그리고 수 백일이 지난 후에 물위로 올라와 항구에 정착하지요. 여러분은 인간이 커다란 물고기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채로 물 밑에서 수 십일을 머물다 나중에 사람들을 토해 낸다는 것을 믿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Hey, hey, wait a minute then. How big is your God? Man can do it but not God. Would you find it easier if it, if the account said, And a submarine surfaced and the captain got out on deck and, you know, they hauled Jonah in and they submerged again and headed towards Joppa and let him off the port. But you see, if you start whacking away at the story of Jonah, and say, oh, I can't really buy that. Wow, watch out now because Jesus bought it.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사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수 없나 보군요. 그럼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해 봅시다. 한 잠수함이 물위로 드러나고 선장이 갑판에 올라, 요나를 끌어올려서 잠수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들어간후 읍바를 향해 간 다음, 그를 항구에 내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오, 난 그걸 믿을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아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도 그걸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One day they said to Jesus, Show us a sign. He said, "A wicked and an adulterous generation seeks afte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For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the whale; so shall the Son of man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Matthew 12:38-40). Oh, Jesus, you mean you believe that story? Didn't you know that's just a myth? That's just fable. How is it that you could be deceived, Jesus? I thought you were, you know, the Son of God and smarter than that.

어느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표적을 보여 주소서’라고 말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38-40). “아. 예수님, 요나의 이야기를 믿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그저 신화라는 걸 아직 모르시나 보죠? 그건 그저 우화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깜빡 속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보다 더 똑똑하신 줄 알았는데요.”

Noah, the earth was really flooded? Noah escaped? Jesus said,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shall it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Luke 17:26). Confirmed that Noah was a real person and it was a real event. So you have to be careful when you start chipping it away at one side because the whole thing will come down on you.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노아의 시대에, 정말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을까요? 노아는 피했다구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26). 노아도 분명히 실존했던 인물이며 대 홍수 사건도 실제 일어난 것임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쪽을 깎아 내릴때 주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이 여러분을 돌연히 공격할수 있으니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Now when you have difficulty in your understanding of a scripture, rather than setting that aside and saying, Well, God really didn't say that; just say, hey, I really don't understand that yet. I have many scriptures that I don't understand yet. I've got a file up here that says, Wait for further information. And I filed many scriptures in that file. Now I'm not about to say God was wrong. I'm just saying, Hey, I am stupid and I lack an understanding. God is right. I don't know exactly yet what He said but when I find out I know He's going to be right. For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한 쪽으로 제쳐놓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걸 말씀하신게 아닐거야”라고 말할것이 아니라, “난 그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어, 내겐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 정보를 더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파일 안에 더 많은 성경의 문제들을 파일을 만들어 정리합니다. 이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둔하고 이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직 까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보게 될것을 압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입니다.” 16절을 봅니다.

and [as such they are] profitable (3:16)

유익하니 (3:16)

And how profitable is the word of God to us today! What a blessing. They're profitable.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요.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말씀은 유익합니다. 16절을 계속합니다.

for doctrine (3:16),

교훈과 (3:16),

What am I to believe about God? What am I to believe about man? What am I to believe about sin? What am I to believe about angels or the future? Or life, or death, or life after death? The scriptures are profitable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my beliefs. They're profitable for doctrine. I can base my beliefs upon what God has said because it is indeed God's word.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사람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죄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또 나는 천사들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인생, 죽음 그리고 죽음 후에 인생은요? 성경은 나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정말 유익합니다. 교훈도 유익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 하신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 말로 진정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I have great difficulty with these people who develop doctrines that are contrary to what Jesus said, as though they understand more than Jesus about what's happening in the future. The Jehovah Witnesses seeking to develop their doctrine concerning hell and that it is a place of oblivion, no consciousness, no awareness. And they use the book of Job as their proof text. When Job was talking to his friends and they were talking to him about the future, and Job said, Oh, I wish I were dead. It would all be over, where, you know, the miseries would all be gone.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반대이론을 내세우는 이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할 때 대단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옥에 대한 교리를 개발하려고 하면서 그곳은 망각의 장소이며 지옥에선 의식도 지각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욥기를 자신들의 이론을 증거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을때 그들은 욥에게 미래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말하길,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났더라면.”하고 한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What's the first thing God said to Job? When God came on the scene and entered the conversation with his friends? He said, Who is this? Who is talking all these words without knowledge? Job, tell me, have you been beyond the gates of death, do you know what it's about? Well, Jesus has and He told us what to, what



it's about in Luke, the sixteenth chapter. Now are you going to, you know, take the word of Jesus? Or are you going to develop a doctrine that is diametrically opposed to what Jesus said? The word of God is the foundation for doctrine. What I believe, I believe because God has said it. And my full doctrinal concepts are premised upon the scriptures. God said it.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번째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현장에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지식이 없이 이 모든 말을하는 자가 누구냐? 욥, 너 죽음의 문턱을 넘어 가본 적이 있느냐? 네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는 것이냐?” 누가복음 16장에서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이론을 전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체적인 교리의 개념은 성경을 전체 조건으로 하는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They are profitable

그것들은 유익하다고 했고,

for reproof, for correction (3:16),

책망과 바르게 하기위한것 (3:16),

And how often the word of God has brought correction to my course of life. Easy it seems to get sort of distracted and off course. And the word of God comes and it brings a balance, it brings a correction, it brings a correct perspective.

주의가 산만해 지고 정로를 벗어나기가 아주 쉬운데 주의 말씀이 항상 나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을 잡아 주고, 옳게 가르쳐 주며 또 우리의 관점을 바르게 해 줍니다.

16절 마지막 부분,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3:16):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3:16);

And righteousness is just actually the act of being right or doing right or living right. It's instructing you on the right kind of life.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It's instructing us in righteousness.

의로움이란 실제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옳은 것을 행하며 또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바른 삶을 지시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것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의로 가르쳐 줍니다.

17절 상반절,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3: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3:17),

And the word perfect of course is always that of completeness. God wants you to be complete. The Greek word literally is fully matured or of full age, fully matured, that the man of God might be fully matured.

‘온전한’이란 단어는 항상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해지길 원하시지요. 그리스말로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완전히 성숙한’ 혹은 ‘나이가 찬’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을 계속 봅시다.

tho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3:17).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3:17).

In other words, the word of God is that which thoroughly prepares me for any work that God might have for me to do. Now many people have a legitimate and proper desire to be used of God. Oh God, I want you to use my life. Good. That’s proper and you should have that desire. But God prepares the instruments through which He works and the most important preparation is through the Word of God. That is where you become thoroughly equipped to do the work that God has designed and ordained for you. So if you want God to use your life, then thoroughly equip yourself in the Word of God, the study, the understanding.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어떤 일이든지 행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 생애를 사용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한 소망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설계하고 정해 놓은 일을 하도록 철저히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여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That’s why we’re here tonight. Just to go line upon line, precept upon precept, plodding right straight through the word of God. The whole idea is that of thoroughly fitting you as an instrument that God can use. And you will find as God’s word becomes a very part of your life and you begin to be guided by the word of God, that God will begin to use you in very exciting ways. But we, so often, make the mistake of going out ill-equipped or running without a message. So God’s word, scripture given for inspiration, by the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꾸준히 바르게 나아 갑시다. 이 전체적인 생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실수 있는 도구로서 빈틈 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 시작하게 될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말씀도 없이 그저 사역에 뛰어드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Of course, this morning we pointed out that the inspiration of the Bible is proved by internal evidences, such as its total accuracy with known facts of science, when it happened to cover scientific subjects. Now though it is infallible, inerrant and inspired, I did make a mistake in my message this morning on the speed of Arcturus; it's twelve thousand miles a second, I think I said twelve million. It's twelve thousand miles a second, but that's pretty fast, too. So you see, I'm not inerrant in all, but the scriptures are.

물론, 오늘 아침 우리가 지적했던 성경의 영감설은 과학적인 주제도 포함될 때 알려져 있는 과학적인 사실로 성경의 전체적인 정확성과 같은 내재적 증거들로 입증됩니다. 성경이 과오가 조금도 없고 틀림이 없이 영감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대각성의 속도에 관해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초에 만 이천 마일을 천 이백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훨씬 더 빠르다고 말한 셈이죠. 나는 이렇게 모든 일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Chapter 4

Paul said to Timothy,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I charge thee before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4:1),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4:1),

Hey, that's heavy duty, man, when you charge a person before God and before the Lord Jesus Christ. Laying a charge now on Timothy.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명령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명령이 지금 디모데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The Lord Jesus Christ who shall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4:1)*

*주 예수 그리스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 (4:1),*

Now the quick is an old English word, it means alive. Someone said in L.A. traffic there are two kinds: the quick and the dead. But the word means alive.

여기에 “빠른(quick)”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살아 있는(alive)”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로스엔젤레스에서 의 교통은 두 가지로 표현 되는데 “빠른 사람과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여기서 “빠른”이란 말은 “살아 있는”이란 뜻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at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4:1);*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4:1);*

The Lord is going to judge those that are alive and those that are dead.

Now there will be two judgments. The one at His coming, His appearing, will be the judgment of those who have lived through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The first thing that Jesus does when He comes again, according to Matthew's gospel is He gathers together the nations for judgment and He will separate them as a shepherd separates his sheep from his goats. And He'll put on His left hand and He said, you know,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iniquity. I was hungry and you didn't feed me. I was thirsty; you didn't give me anything to drink. I was naked, you didn't clothe me. I was, you know, sick and you didn't visit me. In prison, you didn't visit. Lord, when did we see you this way? Well, inasmuch as you did not do it to the least of these, you didn't do it to me.

하나님께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심판은 그가 오실때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대 환난시대를 지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될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때 맨 먼저 행하실 일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것 같이 하여 갈라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주릴때에 너희가 먹을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때에 찾아오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이런일을 보았나이까?” 하리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To those on His right hand, come ye blessed of the Father, inherit the kingdom that was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For when I was hungry, you fed me. Lord, when did we see you like that? Well, inasmuch as you did it unto the least of these, you did it to me. But the judgment, which will determine those who will be allowed to go into the Kingdom Age when Jesus is going to reign upon the earth for a thousand years; after the thousand years reign, then He will judge the dead. And all of the dead, small and great, will stand before the great white throne of God and they will be judged out of the things that are written in the books.

이제 그의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 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이에 그들이 묻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나 심판 때에 예수께서 지상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실 왕국에 들어 갈 자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천년이 지난후에 주께서 죽은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대소를 무론하고 모든 죽은자들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앞에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So I charge you before God and before the Lord Jesus Christ, who is going to judge the alive and the dead at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The two judgments. What does He charge Him?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두 가지 심판을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디모데에게 명령합니까?

Preach the word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4:2);

Why? Because it is the word of God that can change man. It is the word of God that can really inspire them and bring the changes, can cleanse a man. So preach the word.

왜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까? 사람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그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Oh, isn't it a shame that there is so littl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today in the pulpits across the country? All kinds of preaching of psychology and all other kinds of things, but so little preaching of the word. "I charge you before God and before Jesus Christ, Timothy, preach the word." Paul said, "We preach not ourselves, but Christ crucified; and ourselves his ministers for your sake" (2 Corinthians 4:5). His servants. Preach the word.

전국적으로 오늘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적게 전파하니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모든 심리학과 다른 것들은 전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적게 전파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And then he said,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be instant in season, and out of season (4: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4:2);

In other words, be ready to go. Sometimes you feel like it, sometimes you don't. Ready to go.

다른 말로 하면, 늘 준비 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전하고 싶고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고가 아니라 늘 전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reprove (4:2),

경책하며 (4:2),

The word of God is profitable for reproof.

하나님의 말씀은 경책하는데 유익합니다.

rebuke, and exhort with all longsuffering and doctrine (4:2).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4:2).

2절 하반절입니다.

Now Paul is emphasizing here, “Preach the word”, and get the people indoctrinated in the basic foundational truths of God. “Preach the word”.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after their own lusts shall they heap to themselves teachers, having itching ears; And they sha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shall be turned unto fables (4:3-4).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4:3-4).

You know, it is an interesting thing how that the Word of God seems to create an appetite for the Word of God, and it seems to spoil you for anything else. The Word of God is so exciting. There is so much there. It is so powerful, so dynamic that when you really are being taught the Word, and you really get into the meat, you begin to grow and be strengthened. You just can't be satisfied with these little, you know, beautiful days and butterflies and sparrow sermons, you know, everything is pleasant and the world is great.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창조하는지 그리고 그 맛이 다른 것에 대한 구미도 잃게 만든것 같아 재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격을 줍니다. 성경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능력이 있고 다양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깊은 맛을 알때 여러분들은 자라기 시작하며 튼튼해집니다.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이제 여러분은 좋은 날씨라던가 나비나 참새같은 작은 설교들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즐겁고 세계가 광대하지요.

So the time will come though, if the person doesn't have a diet of the Word of God, they get itching ears. Oh, he tells the greatest jokes, you know, man, the guy's a great storyteller and people have itching ears. They want to be entertained and churches have become really entertainment centers. I mean, they put on shows that will make Hollywood jealous. They want to be entertained. Itching ears desiring entertainment, turning their ears away from the truth and it opens them up to be gullible to listen to fables.

하지만 이제 때가 이를 터인데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귀가 가려워 질것입니다. "그분은 배꼽 잡는 얘기를 많이 해 준대요. 오 그 사람은 이야기를 잘해서 사람들의 귀가 가렵대요.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즐거움을 갖기 원하고 교회들은 점점 오락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쇼까지 집어 넣으면 할리웃이 시기하게 될 정도가 될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흥을 하고싶어 합니다. 가려운 귀는 유흥을 바라고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려 우화를 듣도록 속이는 데 귀를 열어 놓습니다.

But watch thou in all things, and endure afflictions, and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and make full proof of thy ministry (4: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4:5).*

Now Paul was an apostle by the will of God but he was also a pastor and a teacher. Timothy had the calling of an evangelist. Paul is encouraging him to preach and to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Now it is important to know what area of ministry God has gifted you and called you to fulfill and that you be what God has called you to be, and not attempt to be something that God hasn't made you. Because the most difficult and frustrating thing in the world is to try to be an evangelist if God has made you a pastor-teacher or to try and be a pastor-

teacher if God has made you an evangelist. You know, we've got to make 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We've got to know what God has called us to be.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또한 목사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부르신 사역의 영역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영역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좌절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로 만들었는데 전도자가 되려는 것이나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사람이 목사와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라고 부르셨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The first sixteen years or so of my ministry was totally frustrating, as I sought to be Chuck an evangelist by the will of God. God didn't call me to be an evangelist. And my endeavors to do so were just totally frustrating and unfruitful. It was not until I really acknowledged and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God had called me as a pastor-teacher that the ministry began to be blessed, because now it's natural, now it's not forced. Now I can be what God has called me to be, comfortable with it, loving it.

내 목회 생활의 처음 16년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자 척 스미스가 되려고 했을 때 나는 좌절감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되려고 했던 노력은 완전히 좌절감을 주었고 열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와 선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감을 느끼기까지는 열매가 없었으며 그 이후에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대로 되어질 때 편안함이 있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So to Timothy,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and make full proof of your ministry." So important that we make full proof of that ministry.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네 직무의 일을 다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사역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For [Paul said]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4:6).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4:6)

Things were going bad for Paul in Rome. The trial is not looking good. He's appeared for his preliminary hearings and he's heard the charges and he has seen the attitude of the Roman government at this point, and Paul realizes his days are numbered. This is the last letter that Paul wrote, his letter, second epistle to Timothy, and he realizes that the handwriting is on the wall.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You see, with Paul he looked at death as only a departure on his journey. I'm going to move in a short while from this tent into a



mansion. “The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2 Corinthians 5:1).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로마에서 바울의 상황은 좋지못했고 재판도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비심리를 위해 로마 정부에 출두했고 자신의 혐의에 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로마 정부의 태도도 보았으며 바울은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후서로서 바울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로 그가 친필로 벽에 써 놓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그의 여행의 출발로 간주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후에 이 장막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1). 나의 출발 시간이 가까이 왔도다.

And then Paul said,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I have fought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4: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4:7),

Oh what an important thing to say when the time of departure gets close. And I look back at my life and I can say, Well, I fought a good fight. I gave up, you know, all I had and I have finished the course. Earlier Paul had written to the Philippians and he said, “I have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of Jesus Christ, neither do I count myself perfect: but this is what I’m doing,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I’m pressing towards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as I press towards the mark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3:12-14). He saw the Christian life as a race.

출발 시간이 가까워 왔을때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역시 내 인생을 뒤 돌아 보며, “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것을 다 드렸으며 나의 갈 길을 마쳤다” 라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찌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12-14).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의 경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He said, don’t you realize “that they which run in a race run all, but only one receives the prize? So run, that you might obtain” (1 Corinthians 9:24). I’ve fought a good fight. I’ve been in there. I have finished now my course and I have kept the faith.

고린도 전서 9장 에서 그는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고린도전서 9:24).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So,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me a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our righteous judge, shall give me at that day: and not to me only, but unto all of them also that love his appearing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4:8).*

We are told to wait for His appearing, to look for His appearing, and now Paul speaks about loving His appearing. The crown of righteousness, Jesus said to the church of Smyrna, “Be thou faithful unto death, I will give thee a crown of life” (Revelation 2:10). The various crowns of heaven, that crown of righteousness. The Lord our righteous judge shall give, not to me only but all those that love His appearing.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계시록 2장에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 2:10). 천국의 여러 가지 면류관들을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의의 재판장이제 그 때에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나 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그리하실 것입니다.

So do thy diligence to come shortly unto me (4:9):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4:9).*

Hey, get here quick. I’m about to leav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So hurry, get here as quick as you can.

“이 보게, 빨리 이곳으로 와. 떠날 시간이 다 되어 난 곧 떠나려고하네. 빨리 서둘러서 가능항 대로 빨리 이리로 오게.” 바울이 디모테에게 한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For Demas has forsaken me (4:10),

*데마는 나를 버리고 (4:10),*

Now Demas was joined with Paul in other of the salutations of his previous epistles, but Paul had said earlier that all of those of Asia had forsaken him. Actually, it probably would have meant their own death had they associated with Paul at this point of the trial, for he was a prisoner condemned to die and their

association with him now would endanger their own lives. “So Demas has forsaken me.” Tragic because of the reason,

데마는 바울의 이전의 서신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안부하는 문장에 언급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 한대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이러한 시점에 다다른 바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수도 있다는 뜻일찌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형을 받도록 정죄를 받은 사형수 였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함으로 신변에 위험을 느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나를 버렸노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having loved the present world, and is departed to Thessalonica (4:10);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4:10);*

In other words, for his own skin, you know, wants to live on so he's departed to Thessalonica.

다시 말해, 데마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 자신이 살기 위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 간것입니다.

Crescens has gone to Galatia, Titus to Dalmatia. Only Luke is with me. So take Mark (4:10-11),

*그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4:10-11),*

This is the Mark that was a nephew to Barnabas who created a fight between Paul and Barnabas earlier. When Paul and Barnabas left on their first missionary journey, Mark went with them, but when they had passed through Cyprus and were heading over to some rough country, Mark got scared and went home and Paul and Barnabas went on alone.

여기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전에 바울과 바나바간에 싸움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번째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브로를 지나 다른 거친 나라들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때, 마가는 너무 공포를 느낀 나머지 집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만 남게 되었습니다.

Now as Paul and Barnabas were getting ready to take their second missionary journey, to go back into the same areas to strengthen the brethren that had been converted in their first journey, Barnabas said, Well, I want to take Mark with me again. And Paul said, Oh no, kid defected the last time, I don't want to take him again. I don't want problems. And so a big argument arose between Paul and Barnabas. The contention was so great that Barnabas took Mark and headed on out for Cyprus and Paul took Silas and headed on back into Asia Minor again.

그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첫번째 선교 여행때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형제들을 영적으로 강건케하기 위하여 방문했던 지역을 돌아보려고 이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갈 것을 제의했지만,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 제 길로 가버린 그를 다시 데려가지 않을것이며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이 너무 극심하여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를 향해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It is interesting now, though you know within the Christian body we can have differences and we have disagreements, but the Lord always brings us back. And now Paul writes of this same Mark that he had problems with earlier, wouldn't go along with Barnabas who wanted to take him.

우리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안에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서로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볼때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일찌기 말썽을 일으켰던 마가를 데려가겠다고 바나바가 주장하여 바울과 딴 길로 갔던 그 마가에 대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And he says to Timothy, "Take Mark,"

그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11절,

and bring him with you: for he is profitable to me for the ministry (4:11).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4:11).

I like that young man. Of course, Mark had matured a lot by now, no doubt. Several years had gone by, but Paul speaks about him in loving terms as being profitable unto him and all.

나는 이 젊은 이를 좋아합니다. 여러 해가 지남에 따라 지금은 마가도 많이 성숙해졌음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모든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사랑 스러운 용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13절,

And Tychicus have I sent to Ephesus. The cloak (that I left at Troas with Carpus, when you come, bring it with you, and also my books, but especially bring the parchments (4:13).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4:13).

Now Paul's dealing with just some, you know, very personal kind of things but, "the cloak

지금 바울은 몇 가지의 아주 개인적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겹 옷을 가져 오라고 부탁드립니다.

Paul, it is said, was an avid reader. In fact, history, Gamaliel, Paul said he sat under the feet of Gamaliel, and we have an account of Gamaliel talking about Paul as a student. And as he spoke of Paul as a student, he said the biggest trouble I had with him as a student was supplying him with enough books. An avid reader, that is why when Paul was making his defense before King Agrippa, Festus cried out, Your much learning has made you mad. Paul had been there reading for two solid years in prison in Caesarea, and every time he saw him, Paul was buried in a book. And he said, hey, you studied too much, you flipped. You went one over the edge. Your much learning has made you mad.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탐독가 였는데 특별히 ‘가말리엘’문하생 중의 한 사람 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자기의 학생이었던 바울에 관해 말한 내용을 보면, 그는 바울이 읽고자 하는 책들을 공급하느라 큰 곤란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바울이 탐독가였으므로 그가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때에, 이를 보고 베스도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베스도의 눈에는 그가 늘 책에 파묻혀 사는 것과 책 읽는 것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한 말은 “이봐,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해서 돌아버렸어, 한 눈금 넘어섰어. 너무 많이 배운 게 결국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So bring me the books, bring me the parch, especially those parchments, you know. You know I think that that’s something about a teacher that you have a thirst and you’ll never stop.

그래서 바울은 “네가 알다시피, 책은 특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아시다시피, 선생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갈급하고 책 읽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Alexander the coppersmith did me much evil: the Lord reward him according to his works Of whom be thou wary also watch out for that Alexander the coppersmith (4:14):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4:14):

That’s interesting, isn’t it? Pray for those, the Lord said, who despitefully use you. but I don’t know that He intended you to pray that way.

그거 참 재미있군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악한 마음으로 악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for he has greatly withstood our words. Now at my first hearing no man stood with me, but all men forsook me: I pray that God will not lay that to their charge (4:15-16).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4:15-16).

Interesting, Paul was totally forsaken by all of his friends. At his first hearing before Nero, they all left him. When Paul, one of his first exposures to Christianity was the stoning of Stephen that is recorded in the Bible. The first time we find Paul, he is standing there holding the coats of the men who were stoning Stephen to death. He just heard Stephen's tremendous witness before the Sanhedrin, of which he was a member. They voted, Stone him. Paul voted, Yes, stone him, you know, he voted consenting to his death. He voted with them to stone him and then he participated by holding the coats of the men who did the actual stoning of Stephen.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친구들로부터 철저히 배신 당했다는 것입니다. 네로 앞에서의 그의 첫번째 심문 때도, 그의 곁에 있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바울이 기독교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것은 그가 스테반을 돌로 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바울을 보게된 것은 스테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의 옷을 지키느라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산헤드린공회원으로 스테반이 공회 앞에서 하는 대단히 훌륭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의하고 스테반을 도로 쳤으며 바울 역시 그를 죽이는 것에 동의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바울은 스테반을 돌로 쳐죽이기로 결의하고 스테반에게 실제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 줌으로써 가담했습니다.

While Stephen was being stoned, you remember that he looked up and he said, Father, lay not this sin to their charge. Don't charge them with this one. That evidently made a pretty heavy impression upon Paul. Because later when the Lord got hold of Paul on his way to Damascus, hey, it's been hard to kick against the pricks, you know, I'm sure that that whole thing with Stephen was still in his mind and on his heart. Seeing this guy die in such a way as, Lord,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Don't charge them with this sin, Lord. Rather than cursing and screaming and all at, those who were, you know, stoning him, this beautiful attitude of love and forgiveness.

스테반이 돌에 맞는 동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말하기를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소서” 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바울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가시 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고 말씀하신것을 아실겁니다. 스테반에 관한 많은 기억들이 바울의 마음과 가슴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소리를 지르거나 저주를 하기는커녕, “주여,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운 태도로 죽음을 맞는 이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Now Paul is more or less emulating that as he talks about these fellows who forsook him. Lord, I hope that the Lord doesn't charge them with that one. And this I love. All of the men forsook me but nevertheless,

바울은 자기를 버린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면서 일종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Notwithstanding the Lord stood with me (4: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4:17),

And that's all I need. The Lord stood with me.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and strengthened me; that by me the preaching might be fully known, and that all the Gentiles might hear: and I was delivered out of the mouth of the lion (4:17).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4:17).

Or Nero. He calls him the lion. Or perhaps he could be referring to, you know, being put in the arena with the lions, but I just thought that he's referring, it was cryptic for Nero.

여기서 사자란 네로 황제를 일컫는 말이거나 혹은 그가 간헐던 원형 경기장의 그 사자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언급한 이 말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암호로 생각됩니다.

Now notice this, "Notwithstanding, the Lord stood with me and strengthened me that by me the preaching might be fully known, and that all the Gentiles might hear". You see what happened is that when Paul stood before Nero; he just took opportunity to preach the Gospel to Nero. I mean, what a great opportunity. I've got to make my defense before this guy and so, but that was Paul's tactic all the way along. Whenever Paul was arrested and had to appear before the judges, or later before King Agrippa, he always used that opportunity to witness and try to win them to Jesus Chri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한 이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는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기회입니까? 내가 이 사람앞에 선다면 변호해야할 준비를 해야겠지만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이 불들려서 재판관 앞에 서야했거나 또는 후에 아그립바 왕앞에 서야했을 때에는 언제나 바울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항상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Now Jesus said to His disciples, You're going to be persecuted and they're going to arrest you and they're going to take you before the magistrates, and you're going to stand before kings. But don't take any forethought what you're going to

say, for in that hour the Spirit will give you the words that you should say and it will turn to you as an opportunity to testify.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할 기회가 되리라 하시니라.”

In other words, you're going to be, you know, arrested, brought to court and all, hey, don't worry about it. It's going to be an opportunity for you to testify, to share your faith. And so Paul took every appearance before the judges and all as the opportunity to testify until he was laying such a heavy witness on Agrippa, King Agrippa. He said, Agrippa, do you believe the scriptures? I know you believe the scriptures. Agrippa said, Wait a minute. Hold on here. You mean you're trying to convert me? And Paul said, Oh, I wish I could. He really was. He was trying to convert him.

다른 말로 하자면, 네가 혹시 불들려서 법정에서 끌려가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가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립바왕에게 중대한 증거를 할때까지 재판장 앞에 나타날때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그립바왕에게 “아그립바 왕이여, 성경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잠깐만, 네가 지금 나를 개종 시키려 하느냐?” 바울이 대답하기를, “오, 왕이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왕을 개종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Now Paul doesn't nor does Luke give us an account of what Paul said to Nero, but you can be sure he laid on Nero one of the, he no doubt figured, boy, if I could win this guy to Christ, think of what good it would do for Christianity, if Nero could be won to Christ. And I'm sure he laid on this guy a testimony like you can't believe. And he said, they all forsook me but “the Lord stood with me”. The Holy Spirit will give you the words in that hour. And He strengthened me that by me the preaching might be fully known. I mean, he laid the full witness on him and that all the Gentiles might hear. The whole court of Nero heard the Gospel. “And I was delivered out of the mouth of the lion.”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무엇이든 변론했는지에 관해 바울이나 누가나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네로 황제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수만 있다면 그가 기독교에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올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을 했음으로 그가 네로 황제에게 증거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네로 황제에게 우리가 상상할수 없는 중대한 증거를 했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모두가 다 그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며 그가 나를 강건케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하심이라.” 네로의 법정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며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을 봅시다.

And the Lord shall deliver me (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4:18)*

Oh yes, He sure did. His head was whacked off and he escaped from Nero. Because Jesus said, “Don’t fear them that have the power to kill the body, but after that have no more power: but rather fear him who after the body is killed is able to cast your spirit into hell” (Matthew 10:28).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머리가 잘려나가는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네로 앞에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28).

Yeah, I tell you, fear ye him. So I’m going to be delivered, Paul says. I know God’s going to deliver me. And Paul knew exactly how because he said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2 Timothy 4:6). I’m going. The Lord is going to deliver me. I think it is wrong when we think that deliverance only comes through healing. God has many ways of delivering us. “And the Lord shall deliver me”

그렇다, 내가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 말라. 나는 건짐을 받게되리라. 바울은 “주께서 나를 건져 내시리라” 는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디모데후서 4:6) 라고 말한것을 보면 그는 어떻게 될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간다. 주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이 오직 치유를 통해서만 온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from every evil work, and will preserve me unto his heavenly kingdom (4:18):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하시리니 (4:18):*

The world might take my life away but man, I’m going to be preserved in the heavenly kingdom.

세상은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만 나를 천국에 들어 가도록 구원하실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상반절까지,

to whom b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Salute Prisca and Aquila (4:18-19),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4:18-19),*

Now here they are again, still in Ephesus, and Paul is so bound to Priscilla and Aquila. Met them first in Corinth. And then they went with him or they went before him to Ephesus. And they were with him in his ministry there and a couple of people that I am anxious to meet, Priscilla and Aquila. Salute them, greet them.

이제 다시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은 아직 에베소에 있으며 바울과 그들은 깊은 인연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그들과 만났고,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내가 꼭 만나서 인사하고 문안하고 싶은 두어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19절 하반절,

and also the household of Onesiphorus (4:19).

*오네시보로의 집에도 문안하라 (4:19).*

Now it is thought that maybe he was killed also in Rome. He looked Paul up, sought for him diligently, found him in a dungeon but it is thought that maybe because of his relationship with Paul, he was slain because he doesn't greet him but only his household. And there are some accounts that he was actually killed because of his relationship to Paul.

아마 오네시보로도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바울을 존경했고 그를 열심히 찾다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의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게는 안부를 전하지 않고 그의 집의 안부만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의 바울과의 관계로 인해 그가 실제로 죽임을 당했다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Erastus stayed at Corinth: but Trophimus have I left at Miletum [which is Malta] and he was sick. Now do your diligence to come before winter. And Eubulus greets you, and Pudens, and Linus, and Claudia and all the brethren (4:20-21),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테와 리노와 글라우디아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형제가 (4:20-21),*

Now, with Pudens and Claudia, couple of interesting names. Oh, I don't have time to go into the story but there are some interesting stories behind Claudia who is thought to have been a princess from the British Isles. And there are some interesting stories in the early church concerning this Claudia. And it's, that she is the same Claudia of course, is not known. But in the early church in Rome, there was a Claudia that had become converted. She was a princess from Britain and had been sent to Mary, one of the Roman leaders, as a part of the treaty and all and was converted to Christ there in Rome and became a very powerful figure in the church.

여기 부테와 글라우디아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십시오. 사실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시간이 없지만 초대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글라우디아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한 섬에서 온 공주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같은 글라우디아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에서 개종한 글라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온

공주였고 협정에 의해 로마의 지도자중 한 사람인 메리에게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로마의 초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으며 그녀는 후에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thy spirit. Grace be with you. Amen (4:22).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찌어다  
(4:22).

So Paul's last letter to Timothy and the last letter that he wrote.

May the Lord richly bless you as the Word of God is now assimilated into your life and you begin to apply it in your daily experiences, that the Word of God might have a purifying effect upon your life this week. Even as Jesus said, "Now you are clean through the word that I have spoken unto you" (John 15:3). May you find the Word of God guiding you in the way of righteousness, being profitable to you in leading you in that path of righteousness, that God would have you to run.

이것이 바울의 생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이며 그가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루어 지게 하시고 날마다의 체험 속에서 적용되길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간동안에 특별히 말씀이신 하나님의 순전한 영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인도하심을 따라 유익함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and strengthen you in the various tests and trials that you'll be facing this week, and cause you to be victorious, more than a conqueror through Jesus Christ.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싸움들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